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전주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부담 경감 위해 기업당 최대 250만원

강한 경제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원기업 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지원한 해상·항공 운임비에서 범위를 확대해 올해는 내

륙운송비도 추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유통·도소매·무역업과 지방세 체납기업, 타기관 중복수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증빙서류를 갖춰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premier17@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수출물류비 지원뿐만 아

니라 수출보험료와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 해외판로 개척 및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지난해 경제위기 속 수출기업에 물류비를 신규로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는데, 올해 역시 물류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시민 체력 증진 위한 '생활체육광장' 운영

전주시, 가까운 공원·천변·학교 등 64곳서 무료로 배울 수 있어



전주시와 전주시체육회는 20일부터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서비스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 풍토 조성 및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광장'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와 전주시체육회(회장 박지원)는 20일부터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서비스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 풍토 조성 및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광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체육광장' 사업은 가까운 공원과 천변, 학교 등 64곳에서 주 5회 새벽·저녁 시간대를 이용해 생활체조, 요가, 배구, 수중스트레칭 4가지 종목을 전문 강사와 함께 누구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다.

생활체육광장이 운영되는 장소와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체육회 누리집(www.jisport.co.kr)의 주요사업안내란을 참고하거나, 전주시 체육산업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아록 기자

덕진경찰서, 소통·공감 간담회 가져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경찰서 카페 휴(休)에서 중간관리자급 직원인 여성청소년계장, 학교전담팀장, 여성강력팀장, 여성수사3팀장, 여성수사4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공감 간담회를 지난 17일 실시했다.

전주덕진경찰서 소통·공감 간담회

는 주 2회, 지휘관과 직원 간 특정 주제나 회의 서류 없이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또 조직 내 의사소통과 공감을 활성화해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찰서 내 특수시책이다.

최준규 여성청소년계장은 "가감 없

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뉘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태형 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내부적으로도 활력있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공감으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중간관리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아 기자

덕진소방서, 강화된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홍보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2022년 12월부터 제·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 예방법)에 따라 강화된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소방 훈

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 수행 기록, 초기대응),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다.

이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전기, 위험물) 겸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 분야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 5. 31.)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이람 기자

전주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2년 연속 선정

4월부터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20개 프로그램 추진

전주시가 2년 연속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돼 올해 총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장애인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발달장애인 치유농장과 접목한 도시농업 힐링프로그램 등 전주형 특화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과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20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2022년 장애

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영농체험 연계프로그램과 장애인 평생학습 박람회 등 12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심도와 참여를 높여왔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장애인이 당연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전주교대 학생들, 전주 청소년 성장 돕는다

전주시-전주교육대, 청소년 자치배움 활성화·예비교원 인성교육 강화 협약 체결

예비 교사인 전주교대 학생들이 전주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 멘토가 돼주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교육대학교는 지난 17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청소년의 자치배움 활성화 및 예비교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협력사업 및 공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상호의뢰 및 연계 △교과 연구 및 기관 활동의 장소 제공에 관한 협력 △전주교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협력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시 야호학교는 향후 운영되는 청소년 자치프로젝트 활동에 대학생 멘토단을 결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교대는 대학생 멘토단을 야호학교에 자원봉사 형태로 파견해 청소년의 정서적·도덕적 발달을 돕고, 교대 학생들에게는 예비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청소년과 청년, 전주시민, 지역공동체에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8기 들어 전주권 대학들과의 상호 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대표적으로 전북대학교 인문대학(학



전주시와 전주교육대학교는 지난 17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청소년의 자치배움 활성화 및 예비교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 신춘균) 소속 12개 학과 교수 19명은 지난해 전주시와 체결한 '전주시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과 전주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올해 시립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인문학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전대학과 전주비전대학 등 전주권 대학 교수들도 지난 13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전주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강좌에 참여해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인재 양성 등을 위해 전주권 대학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협력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예비 교사라 할 수 있는 전주교대 학생들의 참여로 전주시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얻으면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권 대학들과 꾸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키우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협력 모델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